

#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타난 신체장식의 표현특성과 기법에 관한 연구

김은정\* ·곽태기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졸업\*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인간의 사회문화 속에 신체장식은 과거 원시사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특정 나라의 국민성 및 전통적 양식이 담겨있다. 신체장식은 정형적, 무형적 가치를 지니며 사람의 내면 속에 잠재된 본질적 욕구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신체장식 표현을 잘 볼 수 있었던 계기는 세계적 축제로 알려진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이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은 특히, 대중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붉은 악마의 부상으로 민족적, 역사적으로 잠재했던 기운을 분출하는 점화선 역할을 하면서 단합된 한국인의 민족성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롭게 신체를 장식하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충실하게 표현하였다. 과거에 한국은 신체에 장식하는 것을 다소 금하고 배척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신체장식의 대중적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붉은 악마들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신체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몸의 언어(body language)로서 표현하는 행위 예술성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였다.

2002 한·일 월드컵은 축제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축구 하나로 지구촌 축제를 제공했으며 신체장식은 월드컵 응원 문화의 새로운 신선함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게되었다. 원시시대의 제의(祭儀)적인 행사나 축제의식, 전쟁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몸치장이 오늘날에 목적과 의식이 변형은 됐지만

기본적인 신체장식의 의미를 내포하는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타난 신체장식의 표현특성 및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주의(Nationalism)나 애국심을 표현하는 도구로 각 나라의 국기를 이용한 리모델링기법으로 통해 민족적 동질감을 마련하면서 민족성을 표출하였다. 또한 국가 상징적인 전통 의상이나 소품으로 이색적인 전통모드도 민족성을 잘 나타내었다.

둘째, 유머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을 신체장식으로 표현하면서 유희성을 표출하였다. 페인팅 기법이나 기발한 소품을 이용한 기법으로 코믹 모드와 엽기 모드, 풍자적 모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의 표현으로서 나타난 원시성은 원초적인 그로테스크적 모드나 마스크를 통해 호러적 표현으로 충격적인 신체장식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월드컵에서 나타난 신체장식은 일상생활과는 이탈한 표현으로서 나타난 일탈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축제의 극적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신체장식을 함으로써 축제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극도로 비정상적인 행동과 장식이 허용이 되며 이 탈로 인한 흥분과 표현이 다양하게 유출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를 통한 패션의 한 영역인 신체장식이 대중들과 함께 하는 보편적 문화로 발전되어지길 기대한다.